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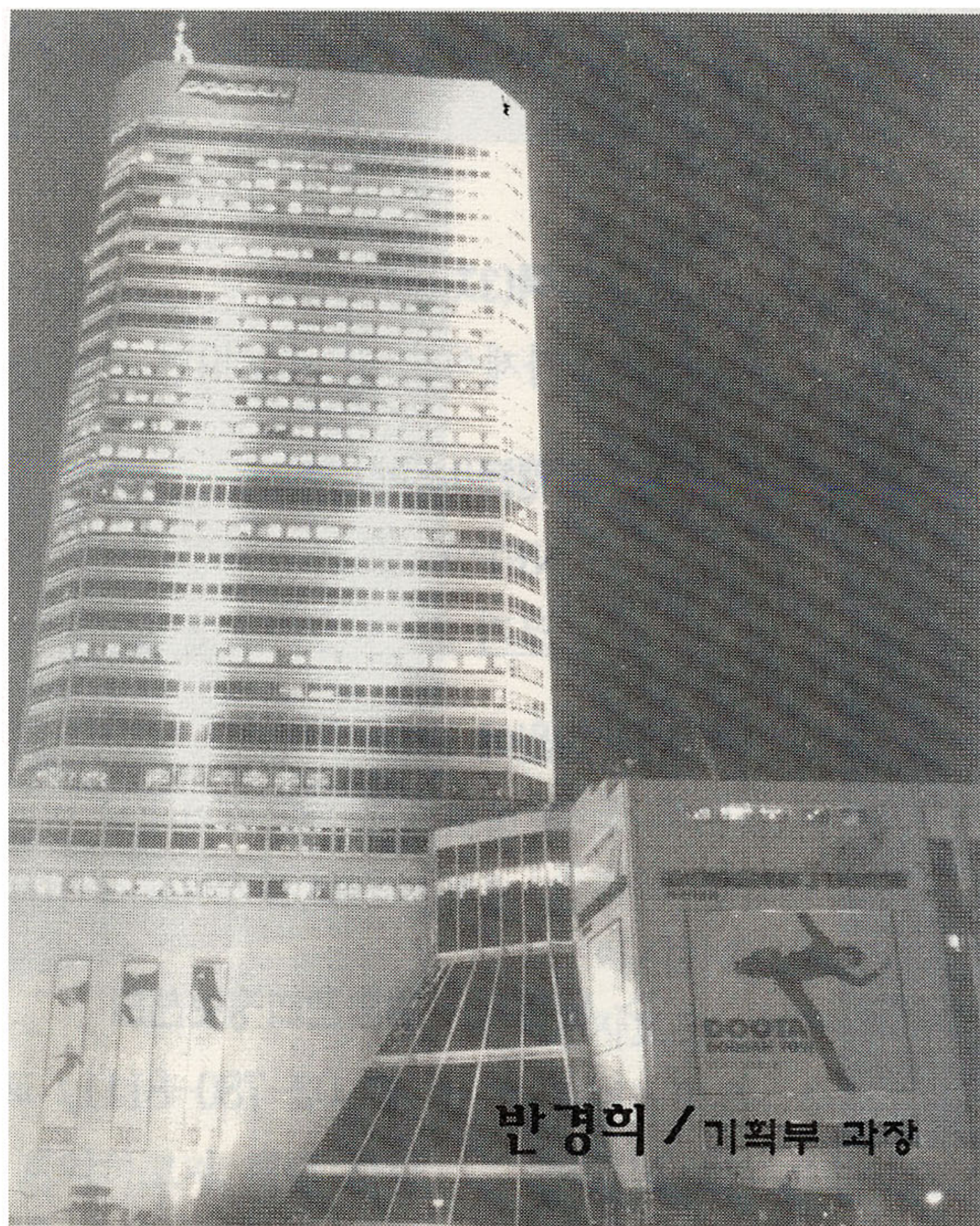
두산타워

남대문을 제치고 IMF를 모르는 도심의 상권으로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에게까지 나날이 그 명성을 더해가고 있는 서울 동대문에 또 하나의 신화에 도전하며 새롭게 자리잡은 두산타워를 서울 중앙지부로부터 화재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관리 면에서도 모범적인 업체로 추천받아 방문하게 되었다.

말로만 듣던 그 유명한 「두타」 두산타워는 포스트모던한 외형과 4대문 내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랜드마크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최첨단 인텔리전트기능이 잘 조화된 건물로서 두산그룹의 기업 이미지인 청정함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면 그 아름다움은 더해져 화려한 조명과 젊음이 살아숨쉬는 시민광장, 산뜻한 외관 디자인이 한데 어울려 강렬한 역동성을 창출해 내며 동대문 일대를 뜨거운 젊음으로 채운다고 한다.

탐방 중에도 연신 3개 국어(국어, 영어, 일본어)로 흘러나오는 쇼핑안내 방송에서 국제화에 대응하는 자세와 함께 쇼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고, 그 규모나 다양함에서 역시 두산타워는 백화점과 재래시장의 장점들이 잘 접목된 대형 종합쇼핑공간으로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어 감탄을 자아냈다.



◆ 일반 사항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을지로 6가에 개관한 두산타워는 지하 7층 지상 34층의 규모로 지어진 건물로서, 지하 2층부터 7층까지는 혼수용품, 의류, 잡화 등 2천개의 윈스톱 패션쇼 핑몰의 판매시설이고, 8층부터 10층까지는 식음업장과 예식 등 연회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대형 이벤트홀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12층부터 34층까지는 은행, 두산그룹

계열사 등 업무시설이 입

주해 있는 다중이 이용하는 초고층 판매/업무 복합빌딩으로서 개관 100일 기념일까지 내방객 1,000만명을 돌파하는 진기록을 세우며 매머드건물로서 손색이 없음을 입증하고 있다.

◆ 건물 현황

대지면적 11,451m²에 연면적 122,608m²에 달하는 이 빌딩은 철골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커튼월 구조로 내화구조의 건물이다.

소방시설을 살펴보면, 종합수신반은 심플렉스사의 최첨단 제품을 설치하여 5만건의 데이터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스프링클러설비는 16,278개의 헤드가 용도와 특성에 맞추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CO₂ 및 NAFS-III 등의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 157조,

연결송수관 157조가 전층에 설치되어 있다.

경보설비로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전층 심플렉스 4100으로 설치되어 집중 감시되고 있으며, 특별피난계단도 5개소 설치되어 유사시 피난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방재센터는 24시간 근무체제로 매시 판매층 및 식음업장에 대한 방화순찰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 방화관리 및 조직현황

두산타워의 관리회사인 동현엔지니어링이 주축이 된 3,280명으로 자체 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 층별, 구역별로 방화책임자 및 화기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비상대기조(주간 30명, 야간 25명)를 별도 편성하여 유사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월 4회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모든 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관리인원 중 방재와 관련된 인원은 방재 8명, 기계 및 전기 7명, 경비 90명, 주차요원 25명 등 총 130명으로,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등의 능력을 보유하여 유사시 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피난유도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있었다. 입주자 및 종사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강의식을 탈피한 현장 위주의 실습훈련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보다 나은 소방안전관리에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 화재예방업무와 그 관리에 관해 한 마디

두산타워 관계자에 따르면 두산타워의 일일 유동인구는 약 1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관리 부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 예방”이라는 생각으로 교육훈련 및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화재에



방에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화재안전은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홍보를 통해 불조심 생활화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각지대와 취약지역(작업장, 화기 취급장소 등)에 대한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확인 점검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무리 설비가 100% 자동화되어 완벽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므로 관리인 각자 안전의 생활화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협회와는 준공 전 설계도면 검토와 안전 진단을 받는 것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하고 방재운용계획연구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두산타워는 협회가 이러한 일련의 점검관리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한 각종 시설물의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유지관리 권장 사항을 안전업무에 반영하는 등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고 있다.

◆ 회사의 자랑을 들어보았다

완벽한 시설관리, 깨끗한 환경관리의 경영을 추구하는 두산그룹의 이미지에 맞게 두산타워에 신용카드제의 도입과 신라호텔과의 업무 제휴 등 공동마케팅을 본격 개시하여 국내 고객은 물론 외국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세계 속의 쇼핑명소 만들겠다는 두산인의 꿈의 실현에 조금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화 기술 전략 습득, 총체적인 품질관리를 접목한 새로운 차원의 관리기법

개발 등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전 임직원의 긍지와 부단한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안전이 보장된 사무·쇼핑·휴식공간으로서 동대문의 1인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